

# 캠핑관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 경험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xperiential Structure of Existential Authenticity in Camping Tourism

김혜원\*\* · 심창섭\*\*\*

Kim, Hye Won · Shim, Chang Sup

### ABSTRACT

**Purpose** - Focusing on camping tourism,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experiential structure of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mping conditions, perceived escape,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experience.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develop measurements, we extensivel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key concep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camping tourists. 3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camping tourists and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 -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experiential structure of existential authenticity in camping tourism consisted of camping conditions, perceived escape,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experience. Second, camping conditions included place, psychological, and location conditions all of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perceived escape. Third, in the context of camping tourism, it is confirmed that existential authenticity experience can be divided into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dimensions and is distinguished from perceived escape.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eoretically meaningful because it empirically showed the experiential structure of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camping industries which want to create existential experiences.

**핵심용어(key word)** :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 관광경험(The Tourist Experience), 일상탈출(Escape), 캠핑(Camping)

\* 이 논문은 김혜원의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제94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1970312@gachon.ac.kr

\*\*\*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cshim@gachon.ac.kr

## I. 서론

관광에서의 진정성 논의는 산업화, 도시화 된 일상에서 ‘진짜’를 경험하기 어려운 현대인이 관광을 통해 ‘진짜’를 경험하고자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MacCannell, 1973, 1976; Cohen, 1979). 특히, Wang(1999)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 개념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관광객은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대상의 진위성 여부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 발견, 진실한 인간관계 등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주장하였다(변찬복, 2013; Brown, 2013; Steiner & Reisinger, 2006). 도보여행, 캠핑, 템플스테이 등 관광대상의 진정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유형의 관광활동이 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관광의 경험적, 정서적, 감정적 측면 등 관광객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존적 진정성 개념은 관광연구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관광활동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광 산업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심창섭·김정아, 2017; Fu, 2019; Kirillova, Lehto, & Cai, 2017).

그러나 학술적, 실무적 관심에 비해 실존적 진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축적은 부족한 상황이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실존적 진정성의 특성상 초기 연구는 주로 개념연구나 정성적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충분한 이론적 합의가 부족한 채로 최근에는 정량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량적 접근에서는 실존적 진정성을 단일 차원, 단일 위계의 변수로 적용한 연구가 대다수로 개인이 관광활동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조는 일반화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즉, 실존적 진정성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및 일상탈출 등의 유사 개념과 실존적 진정성의 구조적 관계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공급자(관광산업), 관광수요자(관광자)의 입장에서 실존적 진정성 경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실존적 진정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는 캠핑관광은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연구의 맥락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캠핑인구는 약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캠핑장(야영장)의 수도 2,700여 개에 이르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2). 국내에서 캠핑은 캠핑매니아 및 동호회 중심으로 향유되던 여가 활동에서 확장되어 대중적인 아웃도어레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캠핑아웃도어진흥원, 2019; 파이낸셜뉴스, 2022). 선행연구에서는 캠핑의 참여동기를 일상탈출, 신체 및 정신적 휴식, 자

연체험, 가족관계 증진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캠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공물로 가득 찬 도시공간에서 복잡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잠재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김진욱·김남조, 2013; Brooker & Joppe, 2014; Triantafyllidou & Siomkos, 2013). 즉 산업화, 도시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개인들에게 캠핑은 실존적 진정성 경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캠핑관광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캠핑관광을 통해 경험하는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 등 캠핑관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학에서 그동안 연구되어 온 실존적 진정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캠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 경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면접조사를 통해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셋째, 캠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의 인과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앞선 과정을 토대로 개발한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실증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개념적으로만 접근되어 온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가시적, 입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및 관광자가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 의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되었다.

## II. 연구의 이론 고찰

### 1. 실존적 진정성

#### 1) 관광에서의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 고유성)은 현대사회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근원적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Boorstin(1964), Macannell(1973; 1976), Cohen(1979)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진정성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일상을 떠나 다양한 유형의 관광활동에 참여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진짜’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심창섭·칼라산토스, 2012; Wang, 1999). 진정성 개념은 박물관에서 유물·예술품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후

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유형의 관광현상을 설명해 오며 현대관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Wang(1999)은 관광에서의 진정성 관련 논의를 포괄하여 <표 1>과 같이 진정성의 유형을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세 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표 1> 관광에서의 진정성 분류

구분	분류	특성
대상 관련 진정성 (object-related authenticity)	객관적 진정성	완전무결한 '진짜'를 추구하는 원본의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관광대상에 대한 관광참여자의 상상, 기대, 믿음, 선호, 권력이 투영된 상징적 진정성
주체 관련 진정성 (subject-related authenticity)	실존적 진정성	관광대상과 상관없이 관광경험에서 관광주체가 겪는 실존적 상태

주 : Wang(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재정리

## 2) 실존적 진정성

Wang(1999)은 관광연구에서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관광대상의 '진짜'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온 객관적, 구성적 진정성 이외에 관광자의 주체성(subjectivity)에 초점을 맞춘 실존적 진정성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관광활동이 관광대상의 진정성만으로 이해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관광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를 경험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대화된 도시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은 일상에서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일상 영역인 관광활동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은 관광 대상의 진정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솔직한 표현, 자아 정체성의 발견, 진실된 인간관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영래·정병웅, 2014; Steiner & Reisinger, 2006). 실존적 진정성 개념은 역치성(liminality)과 개념적으로 잘 연결되는데 관광활동의 공간은 일상의 규범과 역할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역치의 공간으로서 개인이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조우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광자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캠핑, 트레킹, 배낭여행 등 관광 대상의 객관적 속성으로만 설명되기 힘든 관광활동의 유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존적 진정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심창섭·김정아, 2017; Fu, 2019; Kirillova et al., 2017).

Kim & Jamal(2007)은 미국 텍사스의 르네상스 축제 참가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실존적 진정성을 내재적(intrapersonal), 관계적(interpersonal)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측면은 비일상 공간에서의 신체적 욕구표출, 새로운 자아발견과 형성 등을 포함하며 관계적 측면은 축제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평등한 관계와 상호 이해 및 놀이적 분위기를 의미하고 있다. Ryu, Hyun, & Shim(2015)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노인들이 관광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 진정성을 분석하였는데 위계적 질서와 규범 및 금기가 존재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노인들은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며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용희(2016)는 안동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실존적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영향요인(향수성, 자아표현), 대인적 영향요인(지역주민, 동반자), 장소적 영향요인(활동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해옥·현성협(2021)은 율로족(YOLO)의 여행경험 실존적 진정성이 휴식과 힐링, 자아 성찰, 경험성, 이타성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김용현·이훈(2022)은 온라인 축제에서 축제 체험속성 하위요인인 신성성, 대동성이 실존적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관광활동을 주제로 실존적 진정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술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존적 진정성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닌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개념적이고 정성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실존적 진정성을 정량적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실존적 진정성을 단일차원 또는 내재적·관계적 측면의 2개 차원으로 변수화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한 현대관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실존적 진정성 개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에 대한 것보다 체계화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3)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

개인이 관광활동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은 ‘내재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Kim & Jamal, 2007; Wang, 1999). 실존적 진정성의 관점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이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자 타인과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teiner & Reisinger, 2006; Kirillova & Lehto 2015).

내재적·관계적 측면으로 구분된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기에 관광활동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유는 관광활동은 본질적으로 일상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벗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개인은 각자를 둘러싼 책임, 의무, 규범 등에 의해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는데 제약을 지니게 되며 관광활동은 이러한 제약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일상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사회적 역할과 이에 따른 규범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된 인간관계로 인해 개인은 일상에서 자유롭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관광은 현대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일상탈출의 공간이며 이를 통해 실존적 진정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Brown, 2013; Kim & Jamal, 2007; Wang, 1999).

개인이 일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광활동을 통해 개인은 평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새롭고 낯선 공간이 제공하는 환경과 일상과의 실제 거리에 대한 인식은 개인을 비일상의 경험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의 목적과 유형 등 양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상공간으로부터의 물리적 이격이 바로 일상탈출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관광객이 심리적으로 일상을 규정 짓는 책임, 의무, 규범 등으로부터 실제로 벗어났는지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Conti & Cassel, 2021; Foster & McCabe, 2015; Ponsignon, Lunardo, & Michrafy, 2021).

요컨대,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관광활동을 통한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은 세 단계의 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관광활동의 물리적, 심리적 조건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개인이 앞선 조건들로 인해 일상에서 탈출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비일상의 환경에서 내재적, 관계적 측면에서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 2. 캠핑

### 1) 캠핑의 개념

캠핑(camping)은 자신의 거주지 밖에서 최소 하룻밤 이상을 텐트, 트레일러, 캠핑카 등을 이용해 다양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또는 휴식을 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한국관광공사, 2019). 캠핑은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타인과 접촉하는 일시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성장

을 창조하는 야외생활 경험이며 사람들이 자연과 연결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골 뒷마당에서 잠을 자면서 별을 보는 활동에서부터 고급스러운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활동이 캠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김학준·정다혜·함선옥, 2019; 서헌·김용순, 2021). 더 나아가 캠핑은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캠핑활동에 함께 참가한 동반자와의 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캠핑의 기원은 수렵시대부터 유래되며 전쟁이나 상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발전해 왔는데 근대 이후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자의 욕구가 잘 반영된 캠핑은 현대의 대표적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영란·김형곤·오치욱, 2013; Miller, Cervený, Derrien, Selin, & Blahna, 2020).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캠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4년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의 하나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현재 캠핑은 대표적인 관광활동의 하나이자 관광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주영, 2023). 선행연구에 따르면 캠핑장소를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접근성, 자연경관, 편의시설, 체험 및 주변 매력물, 안전성, 지역사회 태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정현·김남조, 2021; MacCannell, 1976; Mikulić, Prebežac, Šerić, & Krešić, 2017).

## 2) 캠핑경험과 실존적 진정성

캠핑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캠핑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성격을 지닌 캠핑의 특성상 캠핑의 경험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riantafyllidou & Siomkos(2013)은 그리스 캠핑참가자를 분석했는데 캠핑의 핵심경험을 자연과의 동화, 타인과의 공동체, 개인적 성장과 재발견으로 구분했다. 김문수(2013)의 연구에서는 오토캠핑객이 가족애 형성, 구성원 간의 친밀감 형성, 자연환경을 통한 자아성찰 과정 등을 통해 캠핑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손수곤·김인형(2015)은 캠핑의 체험내용을 신체적 체험(건강함, 힘겨움), 사회적 체험(가족애, 대인교류감), 심미적 체험(치유감, 희열감, 자연동화감)으로 구분했으며 캠핑체험이 자아발견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일권·김지태·박상규(2016)의 연구에서는 캠핑이 심리적·정신적 만족감 및 일상탈출의 희열을 통해 진지한 여가로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옥·문보영(2015)은 오토캠핑에서 가족관계 향상 등 일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권기남·이주혁·이정래(2015)는 자연에 대한 욕구, 가치재의 역할, 과시용 도구 등 캠핑의 사회문

화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캠핑경험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는 캠핑이 실존적 진정성의 주요 특징을 잘 포괄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공간에서 주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에게 있어 캠핑은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으로 자연과는 다소 거리를 두며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 캠핑은 현대 기술문명으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다양한 층위의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캠핑은 일시적으로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주체적인 삶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 특히 캠핑은 위락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상 공간을 떠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 공간으로 돌아오는 관광의 한 유형임이 틀림없으나, 캠핑은 전통적인 관광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관광의 객체(대상)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관광의 주체(관광자)가 경험하는 캠핑이라는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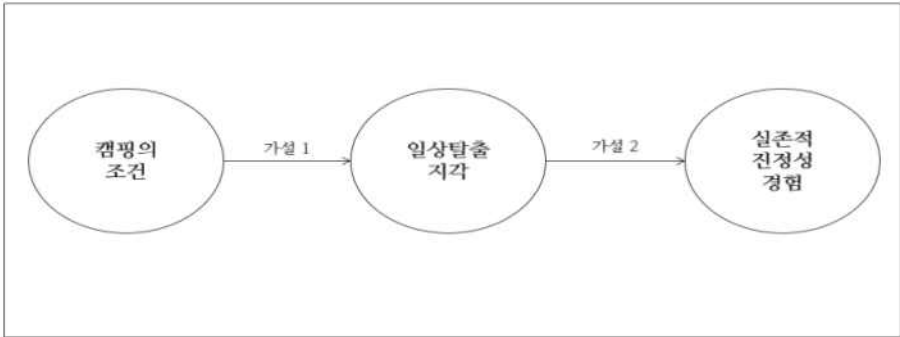
즉 캠핑관광은 일상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진솔한 인간관계를 발견할 계기가 됨으로써 실존적 진정성 경험의 장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캠핑관광은 자연이라는 물리적·심리적 조건 속에서 일상탈출을 지각하며 ‘진짜’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이해될 수 있으며 관광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객관적, 구성적 진정성보다 관광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실존적 진정성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한 맥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캠핑관광을 연구의 대상으로 실존적 진정성 경험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개념 모형 및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 캠핑의 조건과 일상탈출 지각

Ponsignon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자들은 심리적 거리로 인해 국내관광자에 비해 일상탈출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열·이재현·성유정(2012)은 장소의 특징에 따른 방문자의 동기유형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도심형은 쇼핑과 친목 동기가 높은 반면 해안형은 친구·동료와의 친목 화합, 자연경관 감상,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휴식 등의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최언희·이무용(2019)은 도시음악축제에서 나타나는 일탈성을 분석하였는데 시공간적, 행위적, 상황적 일탈 가운데 비밀상성, 공간분리, 공간전유 등으로 구성된 시공간적 일탈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황지영·김철원(2019)은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의 면접을 통해 산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산사를 거닐며 듣는 산사의 종소리, 풍경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등으로도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과 육체가 힐링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김현정·김진동·김남조(2018)는 도시 유형에 해당하는 한탄강 캠핑장의 경우 ‘자녀학습놀이’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자연지역 유형에 해당하는 계방산 캠핑장의 경우 ‘스트레스 완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고 밝혀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캠핑의 조건은 일상탈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일상탈출 지각과 실존적 진정성 경험

Kim & Jamal(2007)은 일상의 사회적 역할과 규범에 억눌린 자아가 축제를 통해 내재적, 관계적으로 표출하여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Cohen(2011)은 배

낭여행자들이 일상탈출을 통해 자유, 자발성, 도전 의식,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남(2012)은 나 홀로 여가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만큼은 사회적인 관계와 삶에서 탈출하여 규범과 주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싶다는 것을 밝혀냈다. 변찬복(2013)은 현대적 유랑자들은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도시라는 시뮬라크르 공간에서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며 일상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여행으로 빠져들어 스스로 실존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숙희·이훈(2017)은 나 홀로 여행자들은 여행을 통해 일상의 시공간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규칙으로부터 탈출하여 잃어버린 실존적 진정성을 찾고자 떠난다고 밝혔다. 김주연(2019)은 일상과 다른 고궁의 역사적 공간에서 한복 입는 체험을 통해 마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이러한 자아 경험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정찬영·김주호(2019)는 근대문화유산 장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비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유산 관련 체험과 활동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영·김철원(2019)은 일상과 다른 사찰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의 자연환경과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통하여 자아 성찰을 추구하는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에게 최적의 공간이 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재곤·고주희(2014), 이현중(2019), 류호철(2019)은 일탈적 관광체험이 실존적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2를 설정하였다.

- 가설 2.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은 실존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은 내재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은 관계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도구 개발 및 설문지 구성

가설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측정항목을 도출하고, 면접조사로 측정항목의 다양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되어 최종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 1) 면접조사

캠핑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총 7일 동안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성별, 연령, 캠핑 경험횟수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준비된 질문 리스트를 기초로 진행하되 반구조적 면접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캠핑 경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면접조사는 각각 약 20-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자의 편의에 따라 대면 면접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14번째에서 15번째 면접대상자를 통해 새롭거나 중요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아 데이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면접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Fusch & Ness, 2015). 연구의 결과는 Dey(1993)의 정성적 자료분석 절차에 기초하여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와 유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자 3인의 검토를 요청해 보완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은 캠핑 참여여성원, 캠핑 장소, 캠핑 경험횟수, 캠핑의 형태(카라반, 오토캠핑, 캠핑 등), 평소 여행 스타일에 따라 본인의 캠핑경험을 폭넓게 진술하였으며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다.

### (1) 캠핑의 조건

면접 과정에서 캠핑의 조건과 관련하여 '캠핑의 물리적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면접참가자들은 대부분 도심 속에서 거주하며 자연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적다 보니 캠핑에서는 도시와 확연히 다른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풍경과 분위기, 청각적인 자연의 소리를 통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면접을 통해 캠핑의 동기가 자연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캠핑장에서 '다른 텐트들과의 간격'이 종종 언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캠핑문화는 바쁜 도심과 일상에서 벗어나 캠핑에서는 쉼, 휴식, 휴양을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다른 텐트와의 간격이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핑에 참여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캠핑의 심리적 조건'과 관련된 내용도 면접조사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캠핑장소의 객관적인 속성과 무관하게 캠핑시점, 경제적 여건, 개인업무 등 참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은 심리적으로 일상생활을 벗어나 캠핑에 온전히 몰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일상탈출 지각

면접참가자들은 캠핑을 통해 도심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일상을 벗어났다고 인식하게 되며 자유롭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특히 캠핑에서는 더 많은 경험을 위해 계획을 짜고 이동하는 다른 여행에 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일상탈출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즉 끊임없는 요구와 의무가 주어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도 무언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캠핑은 휴식에 초점이 맞추어 다른 유형의 여행보다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캠핑은 일상과는 전혀 다른 원초적인 야생의 공간이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해결함으로 일상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색다른 경험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날씨의 영향이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만, 캠핑에서는 좀 더 수용적이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 (3) 실존적 진정성 경험

선행연구를 통해 명명한 내재적 경험과 관계적 경험으로 구분하였고, 면접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 참가자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적 경험’에서는 대부분 평소와 다르게 캠핑에서 직접 요리하고, 텐트를 치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식사는 외식이나 레토르트나 밀키트 등 간편식으로 해결하지만, 캠핑에서는 적극적으로 요리에 참여하고 먹으면서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계적 경험’에서는 캠핑을 통해서 같이 간 사람들과 평소에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은 평소 업무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며 시간적·심리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지만, 캠핑에서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과 분위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2〉 면접조사 결과

구분	주요 면접 내용	
캠핑의 조건	물리적 조건	• 캠핑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느껴 보려 하며 숲의 냄새, 풀소리, 계곡소리, 바람 등 자연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심리적 조건	• 캠핑에서는 같이 간 사람들의 단합이 중요해서 다른 텐트와의 간격이 보장되어있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상탈출 지각	• 평일에 퇴근하고 캠핑하러 가서 일탈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일상과	

	<p>다른 환경이라 더 자유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에서는 일상이나 다른 여행에서 겪는 계획의 부담이나 의무가 없이 캠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어요.</li> <li>• 캠핑을 밤에 가서 텐트를 치느라 고생이었지만, 그건 일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았어요.</li> <li>• 캠핑하러 가서 비가 왔는데도 텐트에서 비 내리는 것을 계속 보고 있고, 텐트에 빗소리가 부딪히는 것도 좋았어요. 평상시라면 출근해야 하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히 불편하고, 비 내리는 것을 쳐다보지는 않죠.</li> </ul>
<p>실존적 진정성 경험</p> <p>내재적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을 통해 사색에 빠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li> <li>• 캠핑을 오면 남편이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놀아주고, 요리도 맡아서 하게 되니 아무래도 가정에서와 달리 아빠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li> <li>• 캠핑은 자신의 본능을 찾게 되는 야생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주체성을 잃게 만드는 도시환경에서 있다가 캠핑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접 짐을 짓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죠.</li> </ul>
<p>관계적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은 마치 대나무숲 같아서 그동안의 쌓였던 마음이나 이야기를 풀고 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어요.</li> <li>• 불명을 통해 같이 간 친구와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li> </ul>

## 2) 설문지 구성

앞선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각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캠핑의 물리적 조건을 ‘캠핑에 빠져들 수 있도록 구성된 자연, 모닥불, 캠핑장비 등의 캠핑환경’으로 정의하고, 캠핑에서의 물리적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권혁중·김동현(2020), 김현정 외(2018), 손수곤·김민형(2015), 최언희·이무용(2019), 최열 외(2012)의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캠핑의 심리적 조건을 문헌고찰과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캠핑에 빠져들 수 있는 편안한 마음 상태’로 정의하고, 캠핑에서의 심리적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권일권 외(2016), 박서현·이민경·정지연(2021), 서현(2021), 손수곤·김민형(2015)의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캠핑에서의 일상탈출 지각을 ‘일상의 요구와 의무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캠핑에 동화됨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캠핑에서의 일상탈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고진용·양택수 (2020), 박준범·심우석(2021), 박지남(2012), 변찬복(2013), 이경여·이훈(2020), 유숙희·이훈(2017), 오상준(2015), 진재수·조환기·김광용(2019), Cohen(2011), Kim & Jamal(2007)의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캠핑에서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과 관련하여 내재적 경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캠핑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계적 경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캠핑

에서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캠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주연(2019), 김수진·김민주·박진경(2017), 김용현·이훈(2022), 김해옥·현성협(2021), 남윤희(2016), 류호철(2019), 송주연·김남조(2018), 심창섭·김정아(2017), 정찬영·김주호(2019), 최민경·이훈(2022), 황지영·김철원(2019), Cohen(2011), Kim & Jamal(2007), Shim(2013)의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3〉 측정항목 구성

구분	조작적 정의	문항 수	출처
캠핑의 조건	물리적 조건 캠핑에 빠져들 수 있도록 구성된 자연, 모닥불, 캠핑장비 등의 캠핑환경	12	권일권·김지태·박상규(2016), 권혁중·김동현(2020), 김현정·김진동·김남조(2018), 박서현·이민경·정지연(2021), 서현(2021), 손수곤·김인형(2015), 최언희·이무용(2019), 최열·이재현·성유정(2012),
	심리적 조건 캠핑에 빠져들 수 있는 편안한 마음 상태		
일상탈출 지각	일상의 요구와 의무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캠핑에 동화됨을 인지하는 것	8	고진용·양택수(2020), 박준범·심우석(2021), 박지남(2012), 변찬복(2013), 이경여·이훈(2020), 유숙희·이훈(2017), 오상준(2015), 진재수·조환기·김광용(2019), Cohen(2011), Kim & Jamal(2007)
실존적 진정성 경험	내재적 경험 일상에서 벗어난 캠핑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8	김수진·김민주·박진경(2017), 김용현·이훈(2022), 김주연(2019), 김해옥·현성협(2021), 남윤희(2016), 류호철(2019), 송주연·김남조(2018), 심창섭·김정아(2017), 정찬영·김주호(2019), 최민경·이훈(2022), 황지영·김철원(2019), Shim(2013), Cohen(2011), Kim & Jamal(2007)
	관계적 경험 일상에서 벗어난 캠핑에서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캠핑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이 진행되었다. 앞서 도출된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캠핑관광 기초문항(5문항), 캠핑의 조건(12문항), 일상탈출 지각(8문항), 실존적 진정성 경험(8문항), 인구통계적 특성(6문항)등 총 3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최근 3년 이내 캠핑 관광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30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SPSS 25.0을 활용하여 도출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캠핑 경험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분석, 설문 측정항목의 타당도 검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인과구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300명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남자(150명, 50%)와 여자(150명, 50%)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203명, 67.7%), 미혼(97명, 32.3%)으로, 학력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176명, 58.7%), 대학원 졸업 이상(54명,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400만원(121명, 40.3%), 400만원~600만원(67명, 22.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은 사무직(148명, 49.3%), 주부(32명, 17.3%), 전문직(29명, 9.7%)으로 사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캠핑 행동에 관한 응답은 참여빈도는 연 1~2회(140명, 46.7%)으로 가장 높았고, 연 3~6회(67명, 22.3%), 연1회 미만(61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구성원은 가족(220명, 73.3%), 친구(139명, 46.3%), 혼자(30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일수는 2~3일(166명, 55.3%), 0~1일(127명, 42.3%)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 참여시 주로 많이 하는 활동은 휴식(247명, 82.3%), 바비큐(246명, 82.0%), 모닥불놀이(165명,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상세구분	명	%	구분	상세구분	명	%
성별	남자	150	50.0	최종학력	고졸이하	37	12.3
	여자	150	50.0		전문대/대학재학	33	11.0
					전문대/대학졸업	176	58.7
					대학원졸업이상	54	18.0
연령	20대	60	20.0	월평균소득	소득없음	11	3.7
	30대	60	20.0		200만원 미만	39	13.0
	40대	60	20.0		200~400만원	121	40.3

	50대	60	20.0		400-600만원	67	22.3
	60대 이상	60	20.0		600-1000만원	48	16.0
					1000만원 이상	14	4.7
결혼여부	미혼	97	32.3	직업	사무직	148	49.3
	기혼	203	67.7		생산직	9	3.0
					서비스직	23	7.7
					전문직	29	9.7
					자영업	17	5.7
					학생	15	5.0
					주부	32	10.7
					무직	10	3.3
					은퇴	8	2.7
				기타	9	3.0	
캠핑 참여빈도	연 1회 미만	61	20.3	캠핑 참여일수	0-1일	127	42.3
	연 1-2회	140	46.7		2-3일	166	55.3
	연3-6회	67	22.3		4-5일	4	1.3
	연7-10회	14	4.7		6-7일	2	0.7
	월 1회 이상	18	6.0		8일 이상	1	0.3
캠핑 참여구성원 (복수선택가능)	혼자	30	10	캠핑 참여시 주로 하는 활동 (복수선택가능)	모닥불놀이	165	55
	가족	220	73.3		걷기/하이킹	149	49.7
	친구	139	46.3		수영	38	12.7
	친척	18	6.0		수상 레저	19	6.3
	연인	26	8.7		바비큐	246	82.0
	기타	5	1.7		영화관람	33	11.0
					자전거	35	11.7
					요리	143	47.7
					휴식	247	82.3
			기타	9	3.0		
				합계	300	100.0	

## 2.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2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KMO값은 모두 0.5보다 크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도  $p < 0.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적재량이 0.5 이하 또는 복수의 요인에 걸쳐 0.5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이는 항목은 제거하였는데(Anderson & Gerbing, 1988), 그 결과 ‘캠핑장소의 전체적 분위기가 좋았다’ 항목 1개가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개념모형 상 2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던 캠핑의 조건은 3개의 요인으로 세분화되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각각의 캠핑사이트 간 거리가 충분했다’ 등 4개 문항이 포

함되었으며 장소조건으로 명명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캠핑을 간 시간이 부담없는 시간이었다’ 등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심리조건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캠핑장소가 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등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위치조건으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Cronbach  $\alpha$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적재량	고유값	$\alpha$
장소 조건	각각의 캠핑사이트 간 거리가 충분했다	.805	2.480	.780
	캠핑장소가 복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았다	.766		
	캠핑장소가 기존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었다	.756		
	캠핑장소는 캠핑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다	.607		
심리 조건	캠핑을 간 시간이 부담없는 시간이었다	.740	2.078	.657
	캠핑을 즐기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718		
	캠핑을 같이 한 사람들이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647		
	캠핑에 소요된 비용이 부담없는 수준이었다	.632		
위치 조건	캠핑장소가 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803	1.796	.634
	캠핑장소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있었다	.778		
	캠핑장소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549		
KMO=.808, $\chi^2=808.915(p<.000)$				
일상 탈출 지각	캠핑기간 동안 평소보다 자유롭다고 느꼈다	.748	3.987	.855
	캠핑기간 동안 평소보다 관대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741		
	캠핑기간 동안 평소의 고민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느꼈다	.739		
	캠핑기간 동안 평소보다 솔직해질 수 있었다	.732		
	캠핑기간 동안 평소 책임/역할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느꼈다	.702		
	캠핑기간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가 잠시 줄어들었다고 느꼈다	.690		
	캠핑기간 동안 평소보다 주변의 시선을 덜 신경 쓸 수 있었다	.649		
캠핑기간 동안 평소 업무로부터 잠시 벗어났다고 느꼈다	.639			
KMO=.874, $\chi^2=854.280(p<.000)$				
내재적 경험	이번 캠핑을 통해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811	2.663	.832
	이번 캠핑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811		
	이번 캠핑을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794		
	이번 캠핑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716		
관계적 경험	이번 캠핑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과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했다	.805	2.568	.810
	이번 캠핑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785		
	이번 캠핑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773		
	이번 캠핑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700		
KMO=.862, $\chi^2=945.570(p<.000)$				

### 3. 가설검정

가설 1과 관련하여 캠핑의 조건이 일상탈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8.532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281으로 28.1%(수정된 R<sup>2</sup>에 의하면 2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55으로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캠핑의 조건의 요인과 일상탈출 지각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소 조건(β=.168, P<.01), 심리 조건(β=.341, p<.01)과 위치 조건(β=.168, p<.01)의 모든 요인이 일상탈출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탈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심리 조건(β=.341), 위치 조건(β=.177), 장소 조건(β=.168)의 순서로 나타나 심리 조건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모두 채택되었다(<표 6> 참조).

<표 6> 캠핑의 조건이 일상탈출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일상탈출 지각	(상수)	.221		7.338	.000
	장소 조건	.047	.168	2.934	.004**
	심리 조건	.051	.341	6.164	.000**
	위치 조건	.047	.177	3.318	.001**
	R <sup>2</sup> =.281, 수정된 R <sup>2</sup> =.274, D-W= 2.055 F=38.532, P=.000				

\*p<.05, \*\*p<.01

가설 2와 관련하여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이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내재적 경험)의 회귀모형은 F값은 p=.000에서 78.03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208으로 20.8%(수정된 R<sup>2</sup>에 의하면 20.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95로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탈출 지각과 실존적 진정성의 내재적 경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β=.456,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관계적 경험)의 회귀모형은 F값은 p=.000에서 122.217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291으로 29.1%(수정된 R<sup>2</sup>에 의하면 28.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07로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과 실존적 진정성의 관계적 경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539$ ,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내재적 경험( $\beta=.456$ ), 관계적 경험( $\beta=.539$ )으로 나타나 일상탈출 지각이 관계적 경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는 모두 채택되었다(<표 7> 참조).

<표 7> 일상탈출 지각이 실존적 진정성 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내재적 경험	(상수)	.263		3.829	.000
	일상탈출 지각	.066	.456	8.834	.000**
$R^2=.208$ , 수정된 $R^2=.205$ , D-W= 2.095 F=78.038, P=.000					
관계적 경험	(상수)	.216		6.401	.000
	일상탈출 지각	.054	.539	11.055	.000**
$R^2=.291$ , 수정된 $R^2=.288$ , D-W= 2.107 F=122.217,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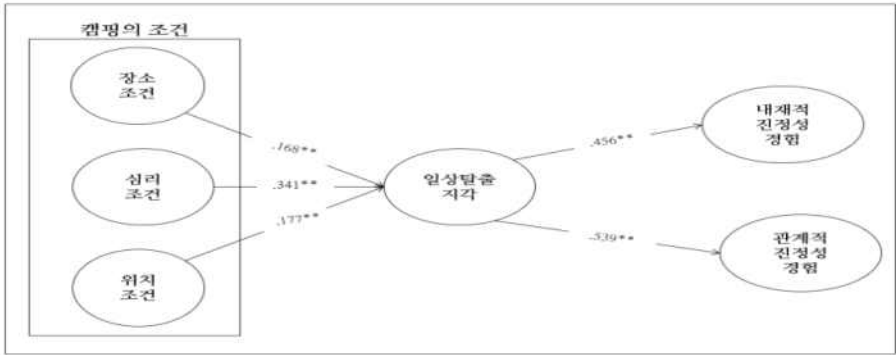
\*p<.05, \*\*p<.01

이를 종합한 가설검정 결과 캠핑의 조건이 일상탈출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캠핑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이 실존적 진정성 경험에 미치는 영향 모두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8>, <그림 2> 참조).

<표 8> 가설검정 결과 요약

구분	가설
가설 1	가설1-1 캠핑의 장소 조건은 일상탈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캠핑의 심리 조건은 일상탈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캠핑의 위치 조건은 일상탈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설2-1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은 내재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캠핑 관광객의 일상탈출 지각은 관계적 진정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연구 결과 종합



## V. 결론 및 시사점

실존적 진정성 개념은 산업화, 상업화, 도시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일상이 어떻게 현대인의 관광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관광학 연구에서 지속적인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념적, 정성적으로 주로 접근되어 온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캠핑관광이라는 공간적, 활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을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의 인과관계의 개념모형으로 구조화하였다. 구축된 개념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 캠핑참가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관광을 통한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 구조는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이라는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설 1, 가설 2와 관련하여 캠핑의 조건은 일상탈출 지각에, 일상탈출 지각은 실존적 진정성 경험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캠핑관광자가 실존적 진정성 경험에 이르기까지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둘째, 캠핑관광에서 일상탈출에 이르기 위한 선행요인인 캠핑의 조건은 장소적, 심리적, 위치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조건 모두 일상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ang(1999), Kim & Jamal(2007) 등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캠핑의 맥락에서도 실존적 진정성 경험은 내재적,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캠핑에서의

실존적 진정성은 일상탈출 지각과는 구분되는 결과변수로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갖는다. 심창섭·김정아(2017), 최민경·이훈(2022) 등 선행연구에서 개념적, 정성적으로 접근되거나 단일 차원 또는 단일 위계로 활용되어 온 실존적 진정성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는 경험구조의 측면에서 캠핑의 조건, 일상탈출 지각, 실존적 진정성 경험의 세 단계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궁극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과정으로서 장소적, 심리적, 위치적 조건과 일상탈출 지각을 제시하고 정량적으로 검증해 실존적 진정성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존적 진정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을 고찰하고 캠핑참가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추상적으로 접근되어 온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 과정을 보다 가시화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캠핑관광을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분석의 틀로 최초로 분석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현대인이 캠핑관광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진짜 자신을 경험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캠핑관광과 실존적 진정성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최근 국내에 캠핑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실존적 진정성과 관련되어 축적된 지식이 캠핑관광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최근 관광산업에서는 관광대상의 매력뿐만 아니라 관광자의 주관적 경험인 실존적 진정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자아발견, 웰니스, 플로우 등의 개념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중요성과 관심에 비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구조를 구체화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광산업에서는 관광자가 일상탈출을 통해 실존적 진정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일상과의 물리적 거리, 캠핑사이트 간 이격, 주변 자연과의 조화, 소음관리 등은 캠핑장 조성 및 운영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캠핑관광의 경우 일상탈출에 이르게 하는 장소적, 심리적, 위치적 조건 가운데 심리적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캠핑관광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의의가 있다. 즉 일상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캠핑장의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심리요소가 더욱 중요하며 개인이 캠핑에 참여할 때 캠핑장의 외부 조건만 고려하기보다는 캠핑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 캠핑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 상태를 잘 고려하여 캠핑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캠핑참가자가 캠핑 자체에 몰입하여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

로 업무와 단절이 가능한 디지털프리(Digital-free)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 구조를 규명하였다는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실존적 진정성 경험 구조를 캠핑이라는 특수한 맥락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른 유형의 관광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도보여행, 축제, 템플스테이 등 실존적 진정성 경험과 관련된 다른 맥락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존적 진정성의 경험 구조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특성상 오토캠핑, 캠핑카, 카라반, 글램핑, 차박 등 다양한 캠핑의 유형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진행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캠핑의 맥락에서 실존적 진정성이 갖는 의의를 구체화하고 더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캠핑의 유형은 물론이고 참가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동반유형, 참여일 수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고진용·양택수(2020). 탈일상동기가 템플스테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중요성통제감의 매개된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94(단일본), 339-367.
- 권기남·이주혁·이정래(2015). 캠핑활동의 사회문화적 의미 읽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4), 123-137.
- 권일권·김지태·박상규(2016). 캠핑 매니아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단일본), 531-542.
- 권혁중·김동현(2020). 호텔&리조트 이용고객의 회복적 서비스스케이프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복 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3), 25-49.
- 김문수(2013). 오토캠핑객의 여가 몰입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여가웰니스학회지』, 4(2), 23-36.
- 김수진·김민주·박진경(2017). 빈티지 여행자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고찰. 『관광연구』, 32(2), 43-62.
- 김영래·정병웅(2014). 관광에서 진정성 논의의 현재와 평가 : 실존적 진정성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5), 79-99.
- 김용현·이훈(2022). 축제 체험 속성이 축제 만족, 실존적 진정성,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27(단일본), 53-91
- 김주연(2019). 고궁 한복체험의 의미 분석. 『MICE관광연구』, 19(4), 59-77.
- 김진옥·김남조(2013). 오토캠핑 참여자의 동기, 가치, 만족도,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지』, 28(5), 45-70.
- 김진옥·문보영(2015). 오토캠핑객의 가치가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7(2), 39-58.
- 김학준·정다혜·함선옥(2019). 캠핑의 개념 정립 연구: 개념화를 위한 고찰. 『관광레저연구』, 31(5), 463-478.
- 김혜옥·현성협(2021). 율로(YOLO)족의 여행경험에 관한 실존적 진정성 척도개발 및 타당성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30(6), 119-137.
- 김형정·김진동·김남조(2018).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자원관리 툴을 적용한 캠핑 경험의 편익 분석. 『관광학

- 연구』, 42(2), 187-208.
- 남윤희(2016). 세계유산 관광지 진정성과 영향요인: 안동 하회마을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호철(2019). 문화관광 관점에서 무형문화재 활용과 실존적 진정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33(1), 35-49.
- 박서현·이민경·정지연(2021). 다크투어리즘 방문 동기가 방문객의 경험, 정서 및 인지적효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1), 169-193.
- 박정현·김남조(2021). 캠핑지 선택속성이 장소성 형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4), 97-122.
- 박주영(2023). 야영장업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관광정책』, 91, 52-60.
- 박준범·심우석(2021). 관광지 체험요소가 체험적 가치 및 일탈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주시 한옥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2), 209-227.
- 박지남(2012). 나 홀로 여가족: 개성추구의 즐거움인가, 공동체의 변화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찬복(2013). 기행다큐멘터리 서사에 나타난 여행의 실존적 진정성. 『인문콘텐츠』, 30(단일본), 99-128.
- 서현(2021).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들과 Ellis 놀이 이론에 관한 연구: 캠핑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9), 339-351.
- 서현·김용순(2021). 레크리에이션 경험선호에 관한 연구: 캠핑과 피싱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3), 459-472.
- 손수근·김인형(2015).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5), 167-178.
- 송주연·김남조(2018). 근대문화유산관광지의 객관적 진정성, 체험, 실존적 진정성, 만족 간의 영향관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3(5), 43-66.
- 심창섭·칼라산토스(2012). 도시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에 관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24(3), 33-56.
- 심창섭·김정아(2017). 실존적 진정성 추구가 자유여행 및 나홀로여행 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1(6), 151-166.
- 오상준(2015). 일상탈출, Flow와 지각된 가치, 지속의도의 관계: 스쿠버다이빙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연구』, 13(1), 91-108.
- 유숙희·이훈(2017). 사람들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가. 『관광학연구』, 41(6), 81-99.
- 이경여·이훈(2020). 축제 일탈활동 척도개발. 『관광레저연구』, 32(2), 99-119.
- 이영란·김형근·오치욱(2013). 캠핑 전문화수준에 따른 제약요인인식과 제약협상전략의 차이. 『관광학연구』, 37(2), 213-232.
- 이재근·고주희(2014). 관광체험의 실존적진정성과 소비만족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18, 151-172.
- 이현종(2019). 민속촌 관광객의 방문동기, 진정성 경험, 관광만족의 영향관계. 『호텔경영학연구』, 28(7), 235-251.
- 정찬영·김주호(2019).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광학적 접근: 문화적 기억, 노스텔지어, 진정성, 경관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90(단일본), 217-238.
- 진재수·조환기·김광용(2019). 안내자의 조력이 여행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1), 77-90.
- 최민경·이훈(2022). 근대문화유산관광지의 지각된 진정성과 체험 및 실존적 진정성 간 영향 관계 분석 군산 방문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6(5), 61-85.

- 최연희·이무용(2019). 도시음악축제에서 나타나는 일탈성 양상 연구: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50(단일본), 65-100.
- 최열·이재현·성유정(2012). 장소에 따른 방문자의 방문 동기 유형 및 평가 결정요인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D』, 32(3D), 275-281.
- 캠핑아웃도어진흥원(2019).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 보고서」.
- 파이낸셜뉴스(2022.10.24). 캠핑인구 700만, 시장 6조3000억원...업계, 시장 공략 박차. (2023년 12월 21일 검색). <https://www.fnnews.com/news/202210221053564136>
- 한국관광공사(2022). 「2021년 기준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 황지영·김철원(2019). 템플스테이 참여자의 체험 본질과 진정성 고찰: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3(2), 22-53.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oorstin, D. (1964).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Brooker, E., & Joppe, M. (2014). A critical review of camping research and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0(4), 335-351.
- Brown, L. (2013). Tourism: a cataly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40, 176-190.
- Bruner, E. M. (1994). Abraham Lincoln as authentic reproduction: a critique of postmodernism. *American anthropologist*, 96(2), 397-415.
- Conti, E., & Heldt Cassel, S. (2021). Liminality in nature-based tourism experiences as mediated through social media. *Tourism Geographies*, 22(2), 413-432.
- Cohen, E. (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179-201.
- Cohen, E.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371 - 386.
- Cohen, S. A. (2011). Lifestyle travellers: backpacking as a way of l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1535-1555.
- Dey, I.(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A User-Friendly Guide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Routledge.
- Foster, C., & McCabe, S. (2015). The role of liminality in residential activity camps. *Tourist Studies*, 15(1), 46-64.
- Fu, X. (2019). Existential authenticity and destination loyalty: Evidence from heritage tourist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2, 84-94.
- Fusch, P. I., & Ness, L. R. (2015). Are we there yet? Data satu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The Qualitative Report*, 20(9), 1408-1416.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 Jafari, j. (1987). Tourism model: the sociocultural aspects. *Tourism Management*, 8(2), 151 - 159.
- Kirilova, K., & Lehto, X. (2015). An existential conceptualization of the vacation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55, 110-123.
- Kirilova, K., Lehto, X., & Cai, L. (2017). Tourism and existential transform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5), 638-650.

- Kim, H., & Jamal, T. (2007). Touristic que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181-201.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589 - 603.
-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ikulíć, J., Prebežac, D., Šerić, M., & Krešić, D. (2017). Campsite choice and the camping tourism experience: Investigating decisive campsite attributes using relevance-determin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59, 226-233.
- Miller, A. B., Cervený, L. K., Derrien, M. M., Selin, S., & Blahna, D. J. (2020). A research strategy to ignite the science of outdoor recreation on public land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38(2), 146-157.
- Ponsignon, F., Lunardo, R., & Michrafy, M. (2021). Why are international visitors more satisfied with the tourism experience? The role of hedonic value, escapism, and psychic dista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60(8), 1771-1786.
- Ryu, E., Hyun, S. S., & Shim, C. (2015). Creating new relationships through tourism: A qualitative analysis of tourist motivations of older individuals in Japan.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2(4), 325-338.
- Shim, C. (2013). Postmodern Tourism as Signification: Definitional Constructs of Authenticity in the Context of Tourism and Their Influence on the Urban Tourist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Steiner, C. J., & Reisinger, Y. (2006). Understanding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299-318.
- Triantafyllidou, A., & Siomkos, G. (2013). Summer camping: An extraordinary, nostalgic, and interpersonal experienc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9(3), 197-208.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 349 - 370.

2024년 4월 3일 논문 접수  
2024년 5월 1일 수정본 접수  
2024년 5월 13일 최종본 접수  
2024년 5월 16일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